2026. 4. 13

금융 Weekly Insight

미국 금융주 1Q26 실적 시즌 시작 – 실적 호조 속 가이던스가 관건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4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 속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7.7%, 9.6%, 4.3%의 반등을 시현. 휴전 협상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속될 전망.
- 이 가운데 이번주부터 미국 금융주들의 1Q26 실적 시즌이 시작. 양호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높은 가운데, 어려운 매크로 환경 속에서 향후 가이던스가 미국은 물론 국내 금융주 투자심리에 있어 관건이 될 전망.
- Base Case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개선 및 주주환원 강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 초점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미국 은행 1Q 실적 시즌 시작: 은행주는 7.7% 상승.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크로 지표 악화에 따른 우려는 상존하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주요 은행들의 1Q26 실적 시즌이 시작. 특히, 국내 은행주는 대형 금융그룹들을 중심으로 미국 은행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참고로,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1Q 중 견조한 대출 성장 및 NIM 개선 기대, 자본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관건은 이들 은행이 제시하는 향후 가이던스. 즉, 이들 은행의 가이던스가 향후 실적 및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미국 은행주는 물론 국내 은행주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초점 필요.
- 증권 – 높은 변동성 흐름 지속: 증권 업종 주가는 9.6% 상승하며 KOSPI 지수(+9.0%)를 아웃퍼폼. 지난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 시사에 따라 증시 반등하며, 증권 업종 또한 반등세를 시현하였음.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 국면에서 높은 수준의 주가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 시장의 기대치는 1분기 실적을 넘어 2분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 관련 세제 개편안 실행 가능성 등 또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밸류에이션 부담 및 운용 손익 변동성 등 증시 민감도가 높은 종목 보다는 안정성 중심 종목 대응을 지속 권고.
- 보험 – 경기 방어적 성격 부각 기대: 보험 업종은 4.3% 상승하였으나, KOSPI 대비로는 언더퍼폼. 보험 본업 차원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성 상승에 따른 1분기 FVPL 자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부담. 다만, 금리-환율 등 매크로 대응 차원에서는 금융 내 민감도가 가장 낮은 만큼, 방어주 성격에서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6) 연초 3개월간 기업대출 15조원 증가 – 5대 은행 생산적금융 출발** – 1분기 중 은행 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대폭 증가하며 생산적 금융이 본격 시작. 5대 은행의 3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은 8.7조원, 5.1% YTD 증가. 중소기업대출은 6.3조원, 0.94% YTD 증가. – 반면 가계대출은 1.9조원, 0.25% YTD 감소. 특히, 주담대가 1.04조원 감소하며 감소세를 주도. – 은행들의 대기업대출 중심 성장은 건전성 관리와 주주환원 관점에서 우량 여신 선호, 고금리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수요 자체가 대기업 쪽에 쏠린 결과로 풀이. 특히,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은 만큼, 생산적 금융 및 우량차주 위주 자금 공급 진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도. – 다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하청업체에 대한 발주와 납품이 많아질 것이고, 이에 낙수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언급.	**1Q 중 대기업대출 견조한 대출 성장:** 3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연초부터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 등이 대출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부각. 다만,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통해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위험가중치 관리 및 NIM 관리가 일차적 관건:** 다만, 단기적으로 대출성장은 긍정적이지만, 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은 위험가중치에 부담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기업 대출 금리가 낮은 만큼 NIM의 방어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 즉, 1Q 실적은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해 향후 이들 자산 중심의 성장이 은행의 자본비율 및 수익성, 더 나아가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하반기로 갈수록 낙수효과 기대 점증 전망:** 일각에서는 생산적 금융 강화에도 불구 대기업 대출 중심 성장에 우려를 제기 가능.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4/5) 디지털 자산 선점 위한 경쟁 심화 – 정관 변경 상장사 올해만 14개 – 국내 상장사들이 잇달아 디지털자산 사업을 정관에 추가 중. 이는 제도화 이전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 – 나이스정통은 디지털자산 보관, 관리 및 이전, 지급결제, 송금 및 정산 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KG이니시스 또한 디지털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및 중개, 보관, 관리서비스 업을 새로 추가. – 기업들이 디지털자산을 정관에 반영하는 이유는 디지털 자산 국내 제도 편입 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줄이기 위함에 있음. 즉, 규제 명문화 대비 정관 정비를 미리 마친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도.	**선제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 필요:** 금융 산업에 있어 가상자산의 도입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 필요. 특히, 시장 선점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사전적으로 한다는 점은 긍정적. **다만, 성공 역량 보유 여부는 물론 경쟁 심화도 고려 필요:** 다만, 단순히 대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 특히, 단순 정관 변경이 아닌, 실제 성공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시장의 기대만큼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가능하단 점을 고려 필요. **최종 Winner는 예단하기 어려움 – Winner여부 상관없이 수혜 가능 기업 발굴 필요:** 즉, 이 시장에서 누가 최종적인 Winner가 될지를 예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등 Winner 여부와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발굴 및 투자가 향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4/6) 우리은행 영업점 통폐합 통해 점포 효율성 제고 노력 – 우리은행이 37곳의 지점 및 출장소를 인근 점포와 통폐합하기로 결정. 내점 고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타행대비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실제로 1) 우리은행의 영업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점포 감소율이 3.05%로 KB 3.72%, 하나 3.43%대비 낮고, KB 772곳 다음으로 가장 점포 수가 많으며, 3) CIR이 48%로 다른 금융지주들의 40% 내외 수준을 크게 상회.	**비대면 금융 시대에 영업점 통폐합은 지속 전망:** 비대면 금융이 강화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업 전반적으로 이어질 전망.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기능 변화도 고려 필요:** 한편, 오프라인 점포의 기능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 즉, 기존의 단순 영업점의 기능을 넘어 실제 고객과의 관계 강화 및 오프라인 미팅이 필요한 HNW 고객 대상 접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은행 여수신 상품 중심의 영업 행태를 넘어 보유 계열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보다 엄밀한 의미의 개인 혹은 법인 자산관리 영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6) 금융지주 이익 증가 불구 카드사는 오히려 이익 기여도 축소** - 4대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 4곳의 25년 연간 지배기업 순이익은 1.17조원으로 12.6% y-y 감소. 같은 기간 이들 금융그룹의 연결 이익이 17.9조원으로 9.7% 증가. 이에 카드사 이익 비중은 6.6%로 1.8%p y-y 감소. - 25년 2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론의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포함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짐. 특히 전업카드사의 25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427억원 감소. - 문제는 여전채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부담 증가.	**이익 기여도 축소 – 다른 비은행들의 약진:** 카드사 이익 기여도 축소의 원인은 다른 비은행 혹은 은행 계열사들의 이익 성장에 따른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 특히, 상대적으로 큰 증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들은 올해 1Q에도 카드사의 이익 기여도 제고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카드사 이익 반등 위해서는 – 일차적으로는 여신 성장이 관건:** 카드사들의 실적 반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신, 즉 카드론의 성장이 일차적 관건이라 판단. 카드론은 상대적으로 금리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이의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및 이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등의 도입 영향 속 차별화 요인 고민 필요:** 가상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 등의 도입 시 이에 따른 영향은 일정 수준 불가피 전망.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카드사들은 단순히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통해 지속해서 사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관건. 특히, 신용카드 상품은 할부 금융이라는 단순 결제 수단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신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차별화 포인트의 향후 소비자에 대한 소구 여부가 관건.
	(4/7) 25년 연간 실적 기준 4대 금융 증권사 순익 급증 - 25년 국내 증시 호황으로 국내 금융그룹의 증권 계열사들이 역대급 25년 실적을 시현. 지난 해 4대 금융 증권계열사 순이익은 1.3조원으로 직전 0.99조원대비 30.5% 증가. 증권사 순이익 비중도 23년 1.3%에서 25년 7.2%까지 가파르게 상승. - 증권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KB 11.5%이며 이후 신한 7.7%, 하나 5.3%, 우리 0.9% 순임. - KB는 26년 2월 중 7천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비이자이익 증대를 노리고 있고, 신한은 은행과 증권 WM조직 통합을 통해 고액자산가 target 종합 자산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하나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였음.	**1Q 중 증권사 실적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 기대:** 올해 1Q 증시 호조로 인해 증권사 실적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 물론 3월 중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향후 이의 완화 국면에서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초점 필요. **표면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실 기반 성장이 관건:** 물론, 현 시점에서의 실적 기여도도 분명 중요. 다만, 현재의 실적 개선은 대부분 브로커리지 기반으로 이는 거래대금에 따른 영향이 큰 사항. 한편, 증권사들은 발행 어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 시작하거나 확대 중. 하지만, 금융 상품의 특성 상 손실이 나거나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은 상수. 즉,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이 향후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4/8) 시장금리 상승 지속 불구 예금금리는 정체 - 주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평균 2.9%로 집계 (4월 7일 기준). 3월 초 은행들이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2.85~2.9%로 올린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은 기간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며 같은 날 3.168%를 기록, 정기예금대비 27bp 높은 수준. -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이 더딘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	**시중자금의 정기예금 지속도 또 다른 이유:** 2월에 이어 3월에도 은행의 수신은 증가세를 지속.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성장이 용이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기업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덜 한 점이 더딘 예금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판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및 이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시 예금금리 상승 가능:** 이는 역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이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시 필요 수신 자금 충당을 위한 예금금리 상승 가능성을 시사. 특히,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점도 고려 필요.
	(4/8) 3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 3월 가계대출 넉 달만에 소폭 증가 전환 - 한국은행이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 가계대출은 0.5조원 m-m 증가하였고, 주담대는 보합, 전세자금대출은 0.4조원 감소. 즉, 가계대출 성장은 신용대출 중심. - 기업대출은 7.8조원 m-m 증가. 대기업이 3.4조원, SME가 4.5조원 증가.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생산적금융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에 기인. - 수신은 20.4조원 증가. 정기예금은 4.4조원 감소하였는데, 주식투자, 정기예금 ABCP 대규모 만기 도래 영향 등에 기인. 참고로 정기예금은 2월 중 10.7조원 증가한 바 있으며, 3월 수시입출식 수신이 25.8조원 가파른 증가세 시현.	**머니무브? 은행 예금 이탈보다는 다른 자금의 증시 유입이 보다 설득력 있어:** 머니무브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은 3월 들어서야 0.5조원 증가한 것. 또한, 수신은 2월 47.3조원, 3월 20.5조원의 증가세를 기록. 물론 은행 수신의 절반 이상은 기업 자금인 만큼, 이를 갖고 논하는 것은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과는 달리 은행들의 대규모 수신 자금이탈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고, 은행들의 예금금리도 그대로인 상황은 일각에서 기대했던 은행으로부터 이탈 및 증시 자금 유입이라는 전형적인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 즉, 은행보다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잉여자금 발생 시 수신 대신 증시 투입 등의 요인들이 보다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견조한 대출 성장세 확인 – 중소기업 대출 성장세 회복 긍정적:** 견조한 대출 성장이 확인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이 1월 2.3조원, 2월 4.3조원, 3월 4.5조원 순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양질의 대출 증가보다는 운전자금 성격이 큰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 이는 역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은행 성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접근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4/8) IMA·발행어음, 내놓는 족족 완판…증시 흔들리자 '증권사 정기예금'으로 돈 몰린다** -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IMA와 발행어음이 안정성·수익성을 겸비한 대안 수신 상품으로 부상. - NH투자증권 IMA 1호(기준수익률 연 4.0%) 4,000억 완판, 미래에셋 IMA 1호 경쟁률 5대1, 한투 IMA 1조원 4일 만에 완판. - 7개 증권사 발행어음 평균 금리 연 3.22%로 시중은행 최고 정기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나 특판 상품은 3.6%까지 제시. 저축은행·인터넷은행도 대응적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수신 경쟁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	**IMA·발행어음 흥행은 증권사 수익 안정성에 기여:**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 자금이 증권사 내에 lock-in되는 점은 수익원 다각화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긍정적 평가. 수신 경쟁의 전선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 중인 만큼 은행 예금 금리 움직임과 증권사 조달 비용 간의 스프레드 변화가 수익성 관점에서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조달 자금 규모 확대가 모험자본 의무 투자(2028년 25%)와 맞물리는 시점에서 증권사별 IB 투자처 발굴 역량이 수익성 차별화의 핵심 변수로 부각 전망.
	(4/9) 李대통령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바꿀 필요"…금투세 부활하나 -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래세는 손익 불문 부과되어 역진성 문제가 있으며, 언젠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라고 발언. - 장기보유 소액주주 대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의사도 병행 표명.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환 방향의 세제개편, 즉 사실상 금투세 재도입 예고로 해석. - 올해 2월 기준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72% 급증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 시 세수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	**잠재 세제개편안은 우호적·비우호적 방향성이 상존:** 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 절감을 유인 거래대금 회전율 증가 기대 가능, 다만 고수익 투자자 과세 규모 강화에 따른 우려 또한 상존. 한편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 시 중장기 투자 문화 확산 기대되나, 세제개편 시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발표 이전까지 관망세 지속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 별 세금 컨설팅, 택스 하베스팅 전략 등이 WM 관점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보험	**(4/8) 보험 신규보장 줄줄이 축소…'손해율 90%' 계리가정 뭐길래** - 금감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1월 발표)에 따라 2Q26 결산부터 경험통계 5년 미만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90%) 적용 의무화. - 기존에는 유사담보 준용이 허용되어 낙관적 가정을 통한 부채 축소 관행이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90%와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함. - 이에 따라 신규 보장 개발이 위축되거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 상반기 중 금감원의 계리가정 정기 감리도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 지속.	**계리가정 보수화로 신계약 CSM 마진 및 CSM 조정 발생 가능:** 중장기 이익 질 개선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부채 재평가에 따른 CSM 조정 발생 예상. 상반기 금감원 정기 감리 결과 발표 전까지 보험업종 투자심리 억제 요인으로 잔존, 주가 모멘텀 회복 지연 전망. 신규 보장 개발 여력 차별화에 따라 보험사간 영업 경쟁력 격차 확대 가능성, 정밀 언더라이팅 역량 보유 여부에 주목 필요.
	(4/9) 보험사 매물, M&A 시장 속속 등판…한투 '첫 베팅' 임박 - 예별생명, 롯데손보 등 중소형·부실 보험사의 M&A 딜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 -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두 딜 중 하나에 첫 베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삼정KPMG가 두 딜의 매각 주관을 담당. -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생명도 1조원 규모의 애큐온캐피탈 인수전에 참전하는 등 업계 재편 움직임 활발. - 재무 취약 보험사의 매물화는 KICS 강화, 계리가정 보수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체력 저하가 주요 배경.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주목:** 한국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여부는 보험·증권 겸영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주목, 연금·자산운용 부문 시너지 기대 가능. 인수 대상 보험사의 계리가정 리스크, KICS 열위 등 잠재 부실에 대한 면밀한 실사가 중요. 다만, 잠재 인수가 고려 시 한국금융지주 자체 리스크 부담은 크지 않을 것. 매물화 보험사 증가는 업권 내 양극화 심화의 방증, 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형사의 생존력 차별화가 더욱 부각될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4-13 (월)		미국 3월 기존주택판매
		중국 3월 광의통화(M2)
		OPEC 월간 보고서
2026-04-14 (화)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미국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일본 2월 산업생산(수정치)
2026-04-15 (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2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미국 4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3월 고용동향	미국 3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2월 산업생산
2026-04-16 (목)	25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미국 3월 산업생산
		미국 4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존 2월 경상수지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영국 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영국 2월 산업생산
		일본 2월 핵심기계류수주
		중국 3월 주택가격지수
		중국 3월 실업률
		중국 1분기 GDP
		중국 3월 산업생산
		중국 3월 고정자산투자
		중국 3월 소매판매
		중국 3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6-04-17 (금)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시행	미국 옵션만기일
		미국 2월 및 3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4-14 (화)		미국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실적 발표
2026-04-15 (수)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PNC파이낸셜, 모건스탠리, 실적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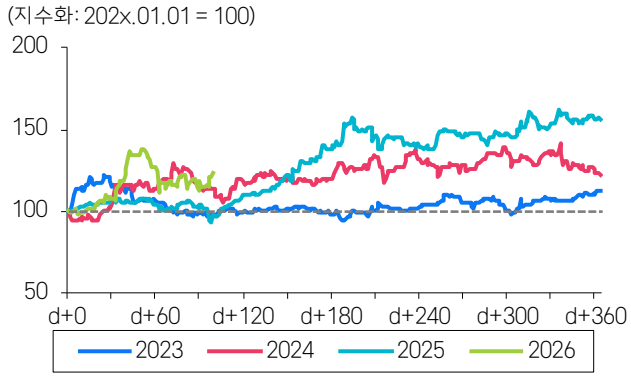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678.0	5,858.9						9.0%	4.4%	139.6%	39.0%
	KRX은행	209.0	1,613.5						7.7%	4.1%	98.1%	23.8%
	KRX증권	96.0	2,738.6						9.6%	(0.0%)	270.2%	79.0%
	KRX보험	99.2	3,222.1						4.3%	(3.8%)	90.5%	20.4%
	결제 지수**	1.418	n/a						6.8%	(7.0%)	63.4%	8.1%
은행	KB금융	59.0	158,300	57.9	0.9	11.1	8.7	11.9	8.8%	4.6%	108.6%	26.9%
	신한지주	46.8	98,700	54.4	0.8	10.3	8.4	14.9	7.5%	8.3%	114.6%	28.3%
	하나금융지주	33.3	119,500	50.1	0.8	10.5	7.4	11.7	8.9%	5.4%	116.1%	27.0%
	우리금융지주	25.1	34,150	42.2	0.7	10.3	7.4	9.3	6.9%	2.4%	113.0%	22.0%
	기업은행	17.8	22,350	35.5	0.6	8.9	6.7	5.3	4.7%	(5.3%)	57.2%	6.7%
	BNK금융지주	5.7	18,450	45.3	0.5	8.8	6.0	18.3	4.8%	(3.1%)	90.0%	16.3%
	JB금융지주	5.8	30,950	42.4	0.5	9.1	5.7	15.1	6.0%	(1.1%)	84.2%	20.7%
	iM금융지주	2.9	18,080	50.8	1.0	13.4	7.6	8.7	8.6%	4.6%	103.4%	16.3%
	카카오뱅크	12.0	25,250	50.0	1.7	7.8	22.0	14.0	7.7%	3.9%	22.0%	16.9%
증권	미래에셋증권	36.9	66,500	60.9	2.7	12.9	22.0	17.5	5.4%	(6.5%)	621.3%	186.0%
	NH투자증권	12.1	34,050	41.1	1.4	12.9	11.2	14.9	13.7%	2.3%	165.4%	61.4%
	한국금융지주	13.5	241,500	25.0	1.2	14.2	9.7	-19.1	13.9%	5.2%	250.5%	49.4%
	키움증권	11.9	453,000	29.5	1.6	20.7	9.0	26.4	10.0%	0.7%	298.8%	56.5%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5	115,600	50.0	1.7	22.8	8.2	14.9	2.9%	0.6%	(0.9%)	2.2%
	삼성화재	21.6	469,500	45.1	1.0	10.1	10.9	12.0	6.3%	(5.6%)	33.4%	(5.5%)
	삼성생명	46.9	234,500	46.3	0.6	3.7	15.9	17.8	6.1%	3.5%	197.6%	48.8%
	DB손해보험	11.7	169,300	32.3	1.1	16.6	6.6	9.0	4.5%	(7.6%)	103.2%	29.1%
	한화생명	4.1	4,775	16.4	0.3	5.6	6.3	37.8	6.8%	(6.4%)	93.7%	46.7%
	현대해상	2.7	30,450	11.7	0.5	17.5	3.3	18.3	1.8%	(0.5%)	48.2%	(1.1%)
결제	카카오페이	7.2	53,100	n/a	n/a	5.6	72.0	57.5	10.9%	(11.9%)	90.0%	8.1%
	NHN KCP	0.7	17,020	n/a	n/a	17.2	12.2	16.1	10.3%	(13.3%)	123.1%	14.2%
	KG이니시스	0.3	10,650	n/a	n/a	7.5	4.7	5.5	3.5%	0.9%	27.1%	4.2%
	KG모빌리언스	0.2	5,090	n/a	n/a	10.7	4.8	8.1	4.6%	1.8%	27.9%	8.3%
	나이스정보통신	0.2	24,800	n/a	n/a	9.2	5.5	29.7	3.1%	(2.7%)	38.2%	(2.2%)

참고: 4/10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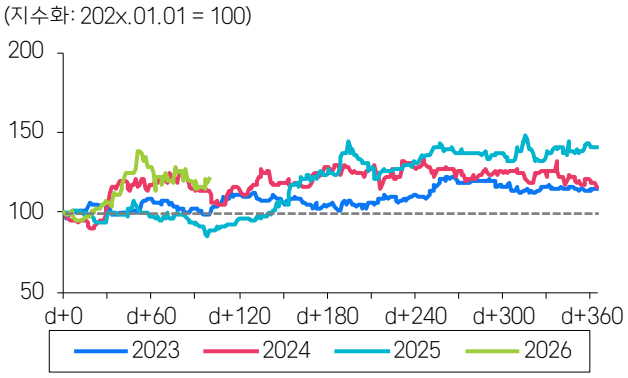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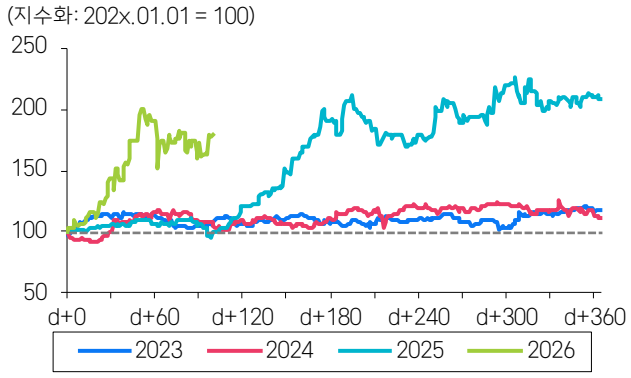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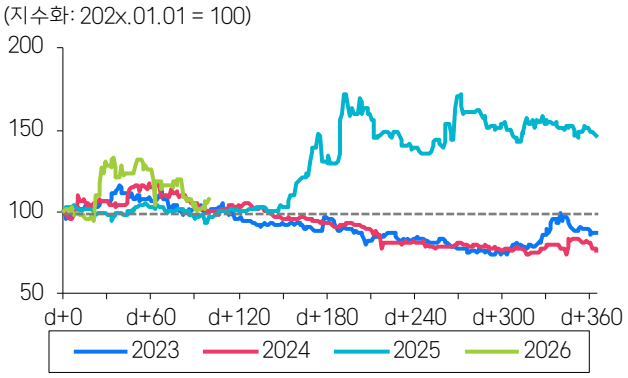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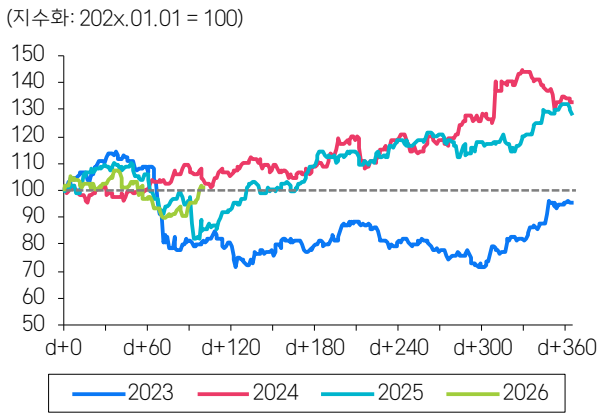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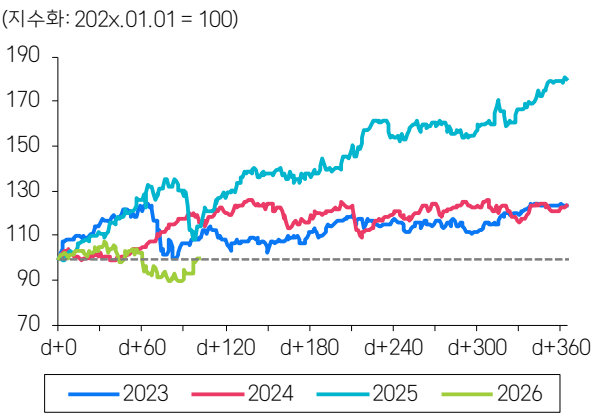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31.1	82.9	2.3	16.5	14.3	7.9	5.2	9.5	31.2	(3.8)
		Bank of America	375.4	99.1	1.3	11.3	12.1	14.3	6.4	11.5	46.1	(4.5)
		Citigroup	213.3	117.9	1.1	9.1	12.0	48.1	7.9	17.9	101.8	6.6
		Wells Fargo	263.5	97.5	1.5	12.7	12.2	12.1	6.0	13.5	36.6	(8.4)
		PNC Financial	89.2	73.8	1.5	12.8	12.2	9.6	4.5	9.1	45.5	5.9
	유럽	Banco Santander	180.2	64.7	1.4	13.5	10.0	9.7	7.2	10.3	88.2	4.4
		Unicredit	120.5	83.7	1.5	16.7	9.3	5.0	9.4	7.9	47.9	(3.4)
		BBVA	129.5	85.2	1.9	19.2	9.7	15.6	5.0	9.4	74.7	(1.7)
		ING Group	83.8	79.9	1.4	13.0	10.7	6.3	7.1	9.3	56.6	3.1
		Lloyds	79.1	84.1	1.4	13.8	10.2	41.7	3.0	5.7	51.1	2.7
		Barclays	81.0	64.1	0.9	10.7	9.1	21.0	7.9	13.3	71.0	(7.3)
	일본	Mitsubishi UFJ FG	211.0	60.8	1.5	10.8	14.5	22.3	2.9	7.0	72.8	14.0
		Sumitomo Mitsui FG	132.6	53.8	1.4	10.8	13.3	38.0	3.0	8.4	80.5	9.8
		Mizuho FG	105.7	67.3	1.5	11.3	14.1	37.3	4.9	10.6	109.3	19.1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5.8	30.6*	0.6	8.9	6.8	2.8	0.1	10.1	33.3	10.8
		China Construction Bank	288.1	29.8*	0.6	9.4	6.5	0.6	0.0	6.8	30.6	9.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30.8	30.1*	0.7	9.7	7.2	3.2	1.9	12.9	30.7	0.2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35.2	N/A	1.4	6.0	22.9	(32.4)	0.5	(2.3)	(8.2)	(4.6)
		AIG	41.1	74.1	1.0	10.1	10.1	흑전	1.9	0.5	(6.2)	(10.1)
		Travelers Insurance	63.2	76.2	1.8	17.0	10.7	1.7	1.1	(1.6)	21.3	2.5
	유럽	Allianz	167.4	80.7	2.2	18.5	12.4	10.4	2.6	6.6	15.0	(3.4)
		AXA	100.3	59.2*	1.7	17.1	9.9	(8.6)	1.5	7.3	10.7	0.4
		Generalli	64.9	58.6*	1.6	14.2	11.7	11.4	0.3	4.9	24.1	0.4
	일본	Tokio Marine	85.9	40.3*	2.5	19.5	13.3	(1.6)	(2.0)	20.2	44.4	22.0
		Daiichi Life Insurance	33.6	58.8	1.4	12.4	12.9	(0.8)	0.6	4.3	63.1	13.7
	중국	Ping An Insurance	151.5	35.7*	1.0	14.0	7.6	7.1	4.2	0.8	47.1	(3.7)
		China Life Insurance	141.0	19.9*	1.1	19.6	5.9	(16.2)	8.6	(3.3)	104.8	(0.8)
		PICC P&C Insurance	42.0	38.4*	1.1	13.9	7.6	6.6	2.0	(6.0)	9.1	(9.5)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78.3	98.4	2.4	16.2	15.5	13.9	5.2	15.3	83.6	3.3
		Morgan Stanley	280.9	72.0	2.6	17.0	15.6	11.5	7.1	15.1	64.3	0.1
		Charles Schwab	169.6	97.2	3.5	22.3	16.4	24.5	1.1	3.9	23.2	(5.1)
		Robinhood	62.3	44.0	5.9	21.0	31.7	6.4	0.4	(9.1)	58.4	(38.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5.0	80.5	6.2	34.8	17.8	14.3	4.4	3.8	24.8	(15.3)
결제	미국	VISA	594.1	21.7*	14.4	60.6	24.1	24.0	1.2	(0.7)	(8.7)	(13.2)
		MasterCard	444.8	17.6*	40.6	191.9	25.9	16.8	1.1	0.3	(2.2)	(12.7)
		PayPal	40.7	5.1*	1.9	23.0	8.7	(3.9)	(0.2)	2.0	(27.7)	(22.5)
	유럽	Adyen	31.6	0*	4.1	21.4	21.8	17.1	1.6	(6.0)	(35.5)	(37.5)
핀테크	미국	Block	37.3	0*	1.5	9.9	19.4	52.9	4.0	3.8	15.3	(4.4)
		Upstart	2.7	0*	2.9	20.7	26.0	133.3	6.6	5.8	(30.1)	(37.7)
		Affirm	16.2	0*	4.1	10.4	44.3	629.7	4.8	4.6	19.9	(34.8)
	중국	LuFax	1.6	N/A	N/A	N/A	N/A	흑전	1.1	(15.7)	(25.1)	(26.6)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4/10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